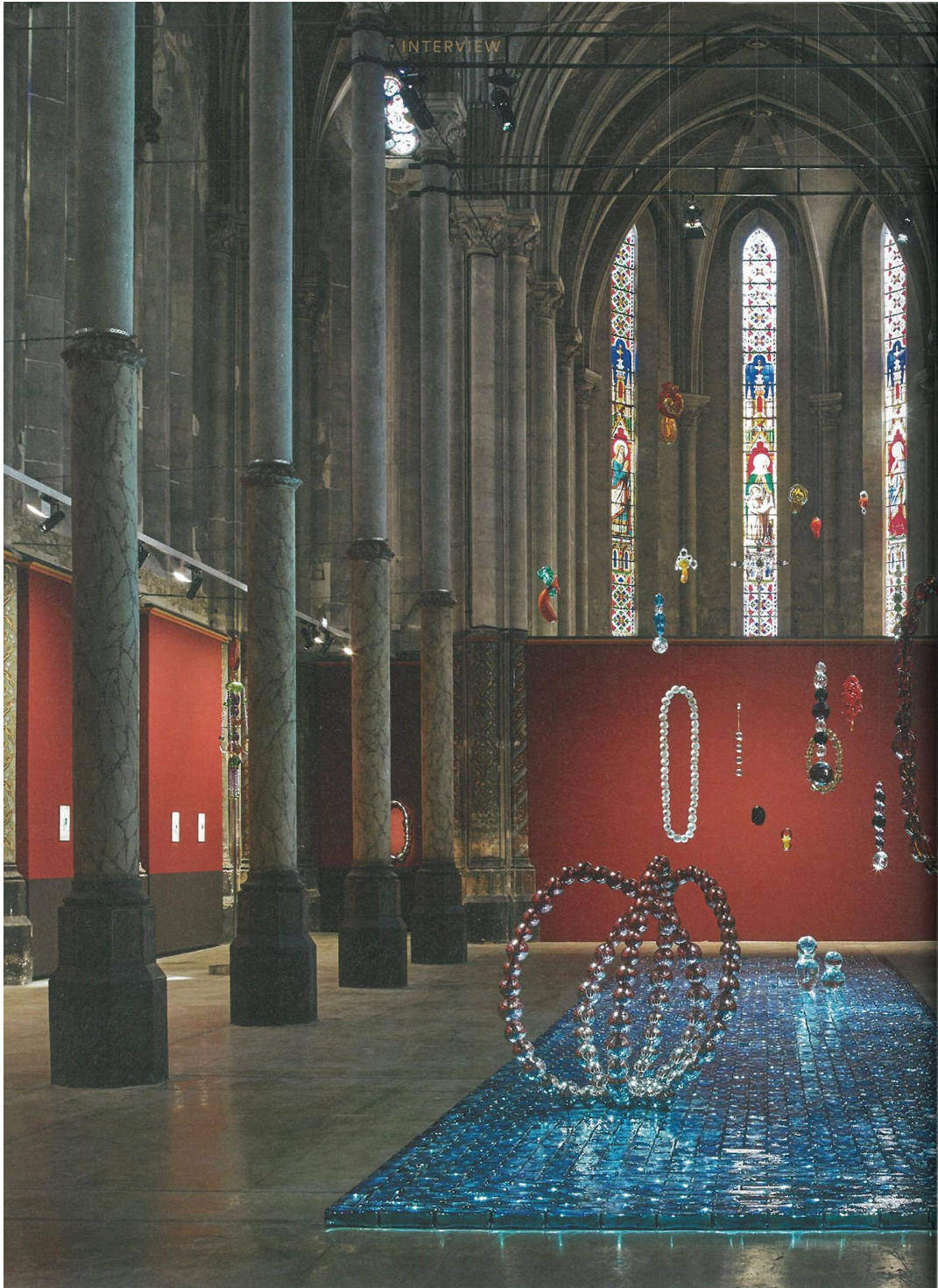


뜨거운 욕망은 물결과 같아

July, 2017 | KANG HYE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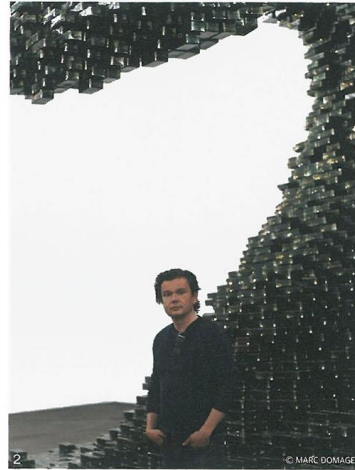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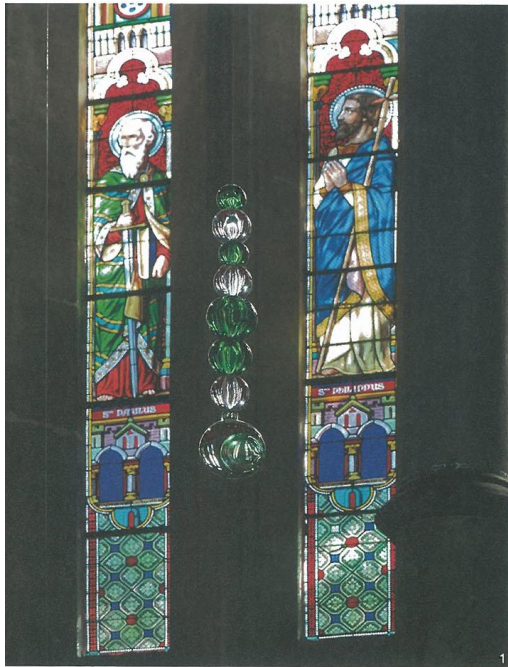
뜨거운

욕망은 물결과 같아

장 미셸 오토니엘이 프랑스 남부 작은 항구도시에서 전시를 연다. 사랑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보았다.

EDITOR KANG HYE YOUNG

프랑스 남부의 조용한 항구도시 세트 Sète. 그리고 바닷길을 따라 만들어진 좁은 선착장 앞에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콘크리트 건물이 마주 보고 서 있다. 옥시타니 지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폐공장에서 미술관으로 재탄생한 옥시타니 현대미술센터 Centre Régional d'Art Contemporain Occitanie다. 욕망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서 미로 같은 길을 따라가야만 작품이 모습을 드러낸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건 아득히 높은 갤러리의 천장을 집어삼킬 듯한 '빅 웨이브 Big Wave'다. 인도 유리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져온 유리 벽돌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공간을 감싸듯 쌓아 올렸다. 당장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은 파도 속에 갇힌 느낌 때문일까. 하늘로 치솟은 파도의 끝머리가 유독 동물의 날카로운 송곳니를 닮아서일까. 파도 앞에 몸을 세우고 정면을 응시하기가 조금 두려웠다. 움직이지 않는 파도란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알게 걸린 작품을 비켜 발걸음을 옆으로 옮겼다. 장 미셸 오토니엘 Jean-Michel Othoniel은 심해의 짙은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인도에서 염료를 골라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을 택했다. "삶은 어둠에서 시작돼요. 힘도 어둠으로부터 뿜어져 나오죠. 어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름다움은 가깝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진지하고 심각하거든요" 전시 오픈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미완의 파도였지만 그 골격만으로도 이미 정신과 육체는 제압당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덤덤하게 파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는다. "아시겠지만 6년 전쯤 일본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당시 일본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지진파가 남긴 상처와 슬픔을 직접 눈으로 봤죠. 혼란스러웠어요. 그보다 몇 해 전 역설적이게도 하와이에서 서핑을 즐기며 물결 위를 뒹굴고 또 파도를 그리워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 모순적인 두 가지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던 차에 1857년 구스타브 르 그레이 Gustave Le Gray



1 카레 샌트 안느 현대미술공간의 스테인드글라스와 그 옆에 있는 '초록빛 만인 L'AMANT VERT'(2006). 2 높이 535cm의 조형물 '빅 웨이브' 아래 선 상 마셀 오토니엘. Courtesy of Othoniel Studio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가 이번엔 전시를 여는 세트의 바닥을 찍은 작품'라고 랑 바그 La Grande Vague(큰 파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곳 세트를 위한 헌사를 바쳐야겠다고 결심했죠." 오토니엘은 각기 다른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혼란스러움을 세트의 파도도 표현했다. 그는 건축적 조형물 뒤에 숨은 사람이 지닌 슬픔과 쾌락 그리고 존경을 한 장 한 장 견고하게 쌓아 올려 결국 관념적 광기로 승화시켰다. 그리고 몽펠리에 카레 샌트 안느 현대미술공간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전시명으로 다른 작업물을 선보인다. 생소한 이름의 카레 샌트 안느 현대미술공간은 1986년까지 식당으로 사용되다가 몽펠리에 시청부의 결정으로 현재는 현대미술 공간으로 바뀐 곳이다. 이후 2011년부터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를 선보이고 있고, 이곳의 책임 큐레이터와 시청부는 오토니엘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큐레이터인 누마 햄부신 Numa Hambursin은 "카레 샌트 안느 현대미술공간은 공간의 특성상 쉽게 전시를 열겠다는 작가들이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 오토니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어둠과 쓸쓸한 미술관에 빛이 되주세요'라고 말이지. 교회와 미술관으로 바뀐 사연과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 빠졌없이 기록하듯 고백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토니엘의 전시 준비는 무려 2년여의 시간을 아우른다. 인터뷰가 있던 날에도 오토니엘은 몽펠리에 햇살의 호위를 받으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전시를 위해 바닥에 몸을 누여 작품들을 다듬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기호화>이라는 제목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작품을 보고 나니 이보다 직관적이고 명료한 전시명이 있을까 싶어요.

전시명은 2004년에 선보였던 '사랑에 빠진 기호화'이라는 글라스 아트워크에서 가져온 거예요. 처음 전시를 제안받았을 때 사랑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중 적합한 상징을 찾아서 영감을 받고자 했는데, 마침 '사랑에 빠진 기호화'이 떠오르더라고요. 소장하고 있는 작품 컬렉션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양면성을 말하고 싶었어요. 희생과 사랑 그리고 상처와 치유 같은 것들이요. 더불어 섬세함과 엄격함, 허구와 폭로, 고통과 아름다움 등 모순적인 감정들도 '사랑에 빠진 기호화'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엔 어두운 것과 밝은 것, 기념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근엄한 것과 화려한 것도 미니멀한 것과 바로크적인 것들이 공존해요. 기호화에서 엄격함은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방해받은 기호화의 엄격함은 저런 모순어법 Oxymoron을 만들어내요. 최근 선보인 '빅 웨이브 Big Wave'나 '더 블루 브릭 로드 The Blue Brick Road'를 보면 눈에 띄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기존 작품들과 다르게 각진 벽돌 모양의 글라스를 바닥에 깔거나, 겹겹이 쌓아 올려 공간을 더 압도하는 형식으로 변했다는 거죠. 반면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축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벽돌 모양의 장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집을 짓듯 쌓아 올

렸고 제작하는 데까지 2년 넘는 실제 기간을 거쳤어요.(유리구슬을 엮은 시리즈도 완성까지 3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마치 건축처럼 보이죠. 제 꿈은 작업물을 아외에 건축처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재료는 변함없이 섬세하고 감각적인 소재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 무엇을 만드느냐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로 건축적 영감은 무엇으로부터 얻나요?** 도심에 있는 박물관과 갤러리 건축들에 관심이 많아요. 갤러리 건축물은 대중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과도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어야 해요. 그리고 특히 오늘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중과 얼마나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건축가장 누벨 Jean Nouvel의 팬입니다. 그와 언젠가 함께 작업하는 게 제 꿈 중 하나일 정도죠. 장 누벨은 저에게 영감을 받고, 저는 장 누벨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뤄지는 작업 말이에요. 상상만으로도 흥분돼요. **작품을 만드는 순간부터 설치되는 순간까지를 담은 영감을 보았어요. 수많은 많은 과정의 반복과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을 볼 수 있었어요. 수도원에서의 수행이 이런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 많은 스테프들과 함께 이룩해내는 작업, 협업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건 언제나 영광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14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는 거대한 그룹이고 심지어 유리 공장은 20년째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죠. 제작업은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어요. 어



장 미셸 오토니엘의 몽펠리에 친사 사랑에 빠진
기호학 GEOMETRIE AMOUREUS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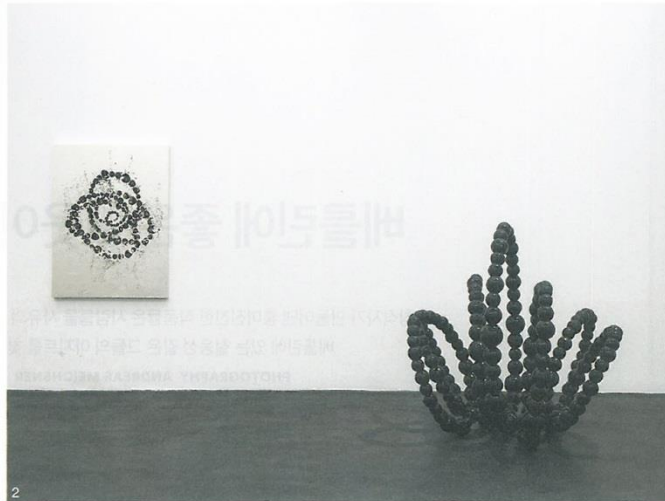


유사태나 현대미술센터의 공간을 채운 오토니엘의
토네이도 TORNADOS(2016)와 보랏빛 토네이도
PURPLE TORNADOS(2016), 알리 타이는 타산철의
조형물인 트윈 토네이도 TWIN TORNADOS(2017)





장미실 오도나컬, '씨케이브(BK) Waves'
유리, 메탈, 나무, 2016



1 천연 흑요석을 폴리싱으로 조각한 '보이지 않는 얼굴'(2015), 2 작년 국제 갤러리에서 선보였던 '검은 연꽃'(2016)과 페인팅.

던 작업은 9년 동안 쉬 없이 달려야만 완성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전문 설치 팀, 그래픽디자이너, 3D 디자이너, 유리 장인들, 심지어 온갖 수학과 과학 공식들을 통해 작품의 최종 설치를 돕는 전문가도 있어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를 만들어내요. 그러한 순간은 곧 영감으로 다가오죠.

당신 작품엔 항상 '승화'와 '조화'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약한 소재들이 강한 메시지를 담은 조형물로 승화되고, 작은 입자로 큰 규모의 작품을 완성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을까요?

승화와 조화를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저의 목표고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균형'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쉽게 깨져버리는 나약한 소재인 유리가 강한 주제로 승화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재료와 주제 사이에 흐르는 균형이 잘 잡힌 긴장감이에요. 하지만 상충하는 개념을 섞는다는 건 여전히 도전이에요.

'종교'를 빼놓고 작품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어요. 불교의 상징인 연꽃을 주제로 한 '검은 연꽃' 그리고 교회를 개조한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만 해도 그렇고요. 사실 예술가에게 종교는 '약의 꽃'과 같다고 생각해요. 때론 영감을 주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잖아요.

종교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종교를 존중해요.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역시 존중하고요. 특히 종교가 가지고 있는 표현적인 메시지보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특정 종교가 아닌 종교라는 개념 그 자체를 탐구하려고 하죠. 그런 탐구 덕에 '심스러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령, 이 세상은 심스러움 존재예요. 때문에 우린 세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사람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깨달음을 작업에 모두 담고 있어요. 제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아름다움, 예술, 종교 이것들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비전이에요.

세트로 전시한 작품들과 몽벨리에에 전시한 작품들 사이엔 어떤 개연성이 있나요?

세트와 몽벨리에에 각각 다른 종류의 작품들이 전시되는 건 분명해요. 세트에는 작년과 올해 만든 최신작을 비롯해 천연 흑요석 덩어리가 갖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조각물 '보이지 않는 얼굴 Invisibility Face'(2015)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에요. 또 작년 국제 갤러리에서 선보였던 '검은 연꽃' 시리즈와 페인팅은 관조의 공간이기도 해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어둠이 가져오는 아름다움을 생각해보는 거죠. 반면 몽벨리에의 카레 샌트 안느 현대미술공간엔 개인 컬렉션 50여 점을 공개해요. '사랑에 빠진 기호학'(2004)을 포함해 최근 15년간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품들을 소개하죠. 이들의 개연성은 초기부터 꾸준히 역설해온 관능과 규율, 상처와 아름다움이 가진 모순과 이중성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 전시장을 모두 둘러보고 사람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번 전시는 100여 점의 페인팅과 100여 점의 드로잉이 함께 전시돼요. 정제된 페인팅과 단정하기 이를 데 없는 드로잉들이 전시장 곳곳에 꽃처럼 만발해 있던데 페인팅과 드로잉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매일 아침 드로잉을 해요. 정적 작업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 직접 손으로 그림 그리고 작업하던 시절과 멀어지더라고요. 두려웠던 거죠. 한편으론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기도 해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그렇게 꾸준히 그렸더니 어느새 아카이브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이 되었어요. 마치 작가 노트 같은 거죠. 그리고 제 작업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드로잉을 보며 '오토니엘이 이런 작업도 했었지'라고 추억하거나, 반면 저를 모르는 관객들은 '이 예술가가 이런 작업도 했어?'라고 새롭게 알게 되는 지리가 될 거라고 기대해요.

당신 작품은 소재의 특성 때문에 작품을 관찰하는 사람과 그 주변을 온통 반사시켜요.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것들은 최근 치유가 담긴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시적인 은유를 즐겨요. 스스로를 작가라고 생각하죠. 제가 제 입으로 '저는 낭만주의자예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싶진 않는데 또 결국 작품을 보면 '저는 낭만주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서 사실 부정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낭만주의자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낭만파의 로맨티즘을 좇을 것 같아요. 마치 빅토르 위고 Victor Hugo처럼요. H

DESIGN 팀세희